

보도시점 4.21.(화) 조간 < 4.20.(월) 12:00 >

중소벤처기업부의 역대 최대 R&D 빅프로젝트, 생태계혁신형 DCP에 41:1의 경쟁률 기록 - 최종 5개 선정에 206개 프로젝트팀 신청 -

- VC 등 민간투자 30억원 이상 유치 + 정부 R&D 최대 200억원 지원
- ‘민간전문가 배심원단’ 구성 등으로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 * ① ‘열린 평가’ 방식 도입, ② 시간 제약 없는 심층평가, ③ 단계별 평가체계 적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올해 신규 추진하는 「생태계 혁신형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eepTech Challenge Project)」(이하 생태계혁신형 DCP) 공모(1.8.~4.7.) 결과, 최종 5개 프로젝트 선정에 총 206개 프로젝트팀이 신청해 4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생태계혁신형 DCP는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글로벌 시장 선점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형 과제를 발굴·지원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다수의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및 대학·출연연 등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도전하며, VC 등 민간 투자사의 30억원 이상 선투자와 연계하여 4년간 최대 200억원의 연구개발(이하 R&D)를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12대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는, 5대 전략기술 그룹 단위로는 제약·바이오 분야에 52개(25.2%), 제조·로봇·방산에 51개(24.8%), 인공지능(이하 AI)·디지털에 37개(18.0%) 등이 접수되었으며, 총 206개 접수 과제에 1,183개 기업·연구소 등이 참여 신청하였다.

<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신청·접수 결과 >

구분	AI·디지털	제조·로봇·방산	제약·바이오	첨단소재·부품	탄소·에너지	합계
12대 전략기술	AI, 양자, 사이버보안,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우주항공·해양, 모빌리티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차세대원자력, 수소	-
과제 수 (비중)	37개 (18.0%)	51개 (24.8%)	52개 (25.2%)	34개 (16.5%)	32개 (15.5%)	206개 (100.0%)

중기부는 동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하여, 최종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고 단계별 평가를 통해 선정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① 전문가 평가단 → ‘민간전문가 배심원단’ 도입

먼저,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위원을 기존 5~7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기술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기업경영·투자 전문가 등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균형 잡힌 평가를 꾀한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배심원단’을 별도로 구성해,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를 보완하는 ‘열린 평가’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 배심원단은 기술혁신 관련 중소기업 임직원, 투자자, 인문·사회 전문가 등 100여 명 내외로 구성되며, 4.21(화)부터 5.8(금)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시간제약 없는 ‘끝장토론’으로 평가

또한, 기존의 단순 발표평가를 넘어 ‘심층토론형 평가’를 도입한다. 대면 평가 시 30분 내외의 제한된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쟁점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의 내실을 높일 계획이다.

③ 단계별 심화평가를 통해 엄선

생태계 혁신의 파급효과가 큰 ‘빅 프로젝트’ 엄선을 위해 1차(서면) → 2차(대면: 열린 평가) → 예비연구 → 최종선정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평가체계를 적용한다. 우선 전문가 심사를 통해 생태계 혁신 프로젝트 여부,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시장 파급효과 등을 집중 심의·선별한 후,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평가를 통해 8개 내외의 우수 프로젝트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 프로젝트팀에는 4개월간 상세 R&D 수행계획 구체화, 핵심 기술의 성능검증 및 협력체계 구축 등 R&D 기획을 지원하는 「예비연구단계」를 부여하고, 이후 경쟁을 거쳐 최종 5개 내외 프로젝트를 연내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생태계혁신형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RFP(Request for Proposal, 제안요청서) 재기획 단계를 거쳐 기술도전형 DCP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우수 과제가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한성숙 장관은 “생태계혁신형 DCP는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지형을 바꿀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가 대표 프로젝트팀을 선발하고, 열린평가를 도입해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도 함께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중소기업정책실 기술혁신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종학	(044-204-7740)
		담당자	사무관	최호성	(044-204-7743)
			주무관	손채은	(044-204-7747)

□ 사업목적

- 생태계 혁신, 글로벌 시장 선점·선도, 게임체인저를 위한 대규모 R&D 발굴·지원으로 국가 성장 동력 구축

□ 지원대상

- 밸류체인 내 협력 가능한 다수 중소기업(선도 중소기업 포함), 대·중견 기업, 대학·연구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프로젝트팀
 - * 선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복수의 협력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민간투자사로부터 30억원 이상 先투자 필요(접수 마감일~최종 협약 전까지)

□ 지원내용

- ^{1단계}예비연구 → ^{2단계}R&D으로 프로젝트당 4년간 최대 200억원 지원

< 2026년도 DCP 생태계혁신형 지원내용·규모 >

구분	(1단계) 예비연구	(2단계) 출연R&D
지원내용	프로젝트당 최대 4억원	프로젝트당 최대 200억원 (1단계 지원금액 포함)
지원기간	최대 4개월	최대 48개월 (1단계 지원기간 포함)
지원규모	프로젝트 8개 내외	프로젝트 5개 내외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조정 가능

□ 지원분야

[5대 전략분야]

전략분야	세부내용
AI·디지털	AI 모델, 양자, 사이버보안, 차세대 통신
제조·로봇	첨단로봇, 제조, 우주항공, 해양, 모빌리티, 방산
제약·바이오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 의료기기
첨단소재·부품	반도체 생산, 신소재, 화학, 디스플레이, 센서
탄소·에너지	차세대 에너지, 에너지효율, 이차전지, 탄소중립, GX